

걸프전쟁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

— 한국개발연구원 —

걸프전쟁 과 관련해 한국개발연구원(KDI)이 제시한 국제 유가 및 올해 경제전망은 최근 경제기획원과 한국은행이 전망한 것보다 훨씬 낙관적이다.

이는 지금까지의 전쟁의 전개양상으로 보아 2주 이내의 초단기전으로 끝날 가능성이 희박해졌으나 우려했던 사우디아라비아등의 유전 파괴 등 석유수급의 교란요인이 생겨날 개연성 역시 희박해졌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.

이에 따라 KDI는 전쟁이 2~3개월 안에 끝난다면 국제유가는 연평균 배럴당 16~20달러 수준으로 하락, 배럴당 23~25달러를 전제로 세운 올해 경제운용계획상의 지표들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

경제성장률은 당초 전망치인 7%수준보다 0.6%포인트 높은 7.6%로 올라가고 35억달러로 예상했던 경상수지 적자도 25억달러로 10억달러가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다.

경제기획원이 동일한 전쟁 지속 기간을 전제로 국제유가를 20~25달러 수준으로 전망한 것이나 이 경우 올해 경제성장을 당초 예상과 같은 7% 수준, 경상수지 적자 폭을 당초 전망치보다 5억~8억달러가 많은 35억~38억달러로 각각 전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.

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장기화될 경우 국제유가 동향과 우리 경제에 대한 전망 역시 KDI는 낙관적이다.

KDI는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석유 수급의 교란위험이 생겨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나 기본적으로 지금의 현황과 미국 이라크 양쪽의 전력을 평가할 때 석유 수급 교란 가능성이 현실로 나타나기도 어렵다는 전망이다.

이에 따라 전쟁이 장기화로 치닫는다 해도 당초 예상한 바대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40달러 또는 60달러까지

폭등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없으며 지난해 하반기 수준과 비슷한 배럴당 21~25달러선을 유지하리라는 것이 KDI의 예측이다.

말하자면 걸프전쟁이 단기전으로 끝나는 장기화되든 국제유가는 올해 경제운용계획 작성시 전제로 한 배럴당 23~25달러선을 넘지 않을 것이란 진단이다.

이에 따라 전쟁이 장기화되든 올해 경제성장은 당초 전망치와 동일한 7% 달성이 가능하며 경상수지 적자 폭도 예상보다 5억달러 정도 늘어난 40억달러선에 그칠 것으로 KDI는 보고 있다.♣

'91년도 국내 경제전망

	1990	1991	
		유가18달러	유가23달러
실질 GNP 성장(%)	9.2	7.6	7.0
총 소비	9.6	8.2	8.0
고정투자	21.5	11.4	9.5
(설비투자)	(16.1)	(12.0)	(10.1)
(건설투자)	(26.2)	(11.0)	(9.0)
상품수출	5.2	8.8	5.4
상품수입	15.0	9.2	8.3
경상수지(억달러)	-18	-25	-40
무역수지	-17	-24	-38
수출(1)	634	692	687
	(3.3)	(9.2)	(8.4)
수입(1)	651	716	725
	(14.6)	(10.0)	(11.4)
무역외및 순이전	-1	-1	-2
물가상승률(%) (2)			
도매물가	4.2	8.0	9.8
소비자물가	8.6	9.0	9.7

※ (1)은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(%)

(2)는 기간중 평균, 전년동기 대비 상승률